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 기념세미나

디지털 미디어시대,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가치와 전망

날짜 2025년 10월 30일(목)

시간 오후 2시 ~ 5시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대회의실

순서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 기념세미나 디지털 미디어시대,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가치와 전망

사회 이상기 부경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전 부산MBC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발표 <라디오 시민세상>의 역사와 가치_ 박지선 미디어 활동가

지정토론 김대경 동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도상형 부산MBC 편성제작국 TV제작부장
배효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유진 시민참여자

자유토론 참가자

■ 주제발표

<라디오시민세상>의 역사와 가치¹⁾

박지선(미디어활동가)

1. 부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역사
2. <라디오 시민세상>의 지속 가능 구성 요소
3. <라디오 시민세상>의 지속 운영에 따른 파생 효과
4. <라디오 시민세상> 아카이브의 필요성
5. 마무리

2000년 새로운 통합방송법이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민참여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방송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방송물을 제작하고, 미디어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참여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시민사회 진영의 언론 개혁 운동이 전개하는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류미디어에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방송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 2019). KBS<열린채널>의 경우, 방송법 제5장 제69조 제7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편성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KBS<열린채널>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작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는 지역주민,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청년, 예술인 등 주류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과는 구분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청자·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심사평가 표준양식을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소수자보호, 지역성/공동체성 구현, 방송의 다양성 실현, 주민참여, 작품성 등 다섯가지 평가항목에 동일한 배점을 두고 있다. 소수자 보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이 불리한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한 내용을 다루며, 지역성/공동체성 구현 항목에서는 지역관심사, 지역자치 등 지역성 및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방송의 다양성 실현 항목에서는 환경, 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등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의 다양성이 구현되었는지 평가하며, 주민참여 항목에서는 지역주민 혹은 지역 자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1) 본 세미나 발표 원고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2024년 활동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발간된 <부산 퍼블릭 액세스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징과 현황: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을 중심으로>(박지선, 2024, pp.73-127)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있는지, 작품성 항목에서는 작품의 독창성과 참신성, 메시지의 전달력 등의 작품완성도 구현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자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라디오시민세상>이 있다. 지역방송사인 부산MBC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2005년부터 현재(2024)까지 방송되고 있는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라디오시민세상>은 부산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다양한 부산 시민들이 시민제작자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민MC와 함께 주고받는 '대담' 코너와 시의성 있는 현안을 다루는 지역뉴스 '뉴스의 발견', 부산의 이웃을 소개하는 '사람과 사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에 첫방송을 시작하여, 2025년에는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라디오시민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가 지역에서 가지는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부산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측면보다는 부산지역 최초의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자, 부산 시민의 라디오라는 측면에서 방송사 명칭을 제외하고 <라디오시민세상>으로 명기하고자 한다.

1. 부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역사

1) 출발: 부산지역 퍼블릭 액세스의 출발

2005년 가을, 부산민연련이 부산MBC에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당시 (구)방송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방송채택료를 방송위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오다 정책의 실패로 2005년 8월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는 방송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유승관 외 2인, 2011). 그러나 당시 부산MBC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체 예산으로 <라디오시민세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부산의 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부산MBC와 부산의 시민사회는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라는 운영체계를 만들게 된다. 2005년 10월에 부마민주항쟁을 주제로 <라디오시민세상>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27분을 편성하게 되었다. 부산MBC는 라디오 제작에 필요한 MD(Mini Disc)와 구성비 및 출연료를 지원해주었다. 방송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토론회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방송참여를 돕는 자원활동가 형태의 제작지원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독립영상활동가나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제안하여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 가을, <라디오시민세상>은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었다. 프로그램을 런칭한지 1년만에 시민사회 내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라디오 뿐만아니라 TV 액세스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송일	콘텐츠-형식	콘텐츠-분량	주제	방송명	참여단체명
2005.10.29	대담	40분	역사	되돌아보는 부마민주항쟁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05.11.5	대담	40분	사회	APEC의 두 얼굴	아펙반대부산시민행동
2005.11.12	대담	40분	교육	학교 급식문제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2005.11.19	대담	40분	환경	APEC 기후 변화 파트너십	부산환경운동연합
2005.11.26	대담	40분	노동	보육교사 처우 문제있다	부산보육교사노조
2005.12.3	대담	40분	교육	학령기 아동의 지원대책	부산여성회
2005.12.10	대담	40분	사회	사람 놓고 차 날지, 차 놓고 사람 날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005.12.17	대담	40분	사회	우리의 쌀 문제, 쌀은 생명이다	부산민중연대
2005.12.24	취재물	40분	사회	부산시 예산, 제대로 쓰여지나	부산경실련
2005.12.31	대담	40분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교조 부산지부

2) 요약: 부산MBC 방송국 PD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라디오 종편 제작

2007년 봄, 녹음장소를 방송국에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로 옮기게 되면서 <라디오시민세상>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고, 참여하는 시민제작자들도 방송국이라는 장소가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미디어활동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매주 라디오녹음실을 <라디오시민세상>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함으로써 시민제작자, 제작지원팀, 오퍼레이터 등 관계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제작하는데 있어 지금까지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라디오시민세상>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제작되고 있는 와중에 <TV시민세상>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와 시민워크숍이 자주 열리게 되었다.

2007년 3월 15일 ‘퍼블릭 액세스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액세스 프로그램 소개와 제작방법 등 실질적인 준비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또한 기존의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팀 구성원을 확대하여 TV시민세상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학과 대학생과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도 활동의 기회를 자주 만들게 된다.

3) 진화: 위기 속에 진화하는 부산MBC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KBS부산총국이 <열린채널 부산>을 편성했다. 월 1회 두 편씩 방송하며, 응모작 중에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임한 위원 3인이 논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었다. <열린채널 부산>을 담당했던 PD는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18)에서 프로그램 수급 문제, 새로운 소재와 시각의 부족, 일반 시민 참여 부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쏟림현상’을 지적했다. 수급이 특정 시기에 쏠리는 문제, 소재나 주제의 쏠림 현상, 응모자들의 직업이 대학의 미디어 관련 학과 학생이나 영상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VJ등으로 쏠리는 현상들을 언급했다.

2007년 6월에는 부산MBC의<TV시민세상>이 출범하게 된다.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오전 10시, <스페셜 전국시대> 내 마지막 꼭지로 편성하고,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멘트를 한 뒤, <TV시민세상> 타들이 나가면서 송출하는 형식이였다. 2008년 2월에는 이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하고, 자체적인 시민진행자와, 종편까지 제작지원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살리려면 시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춰야한다는 고민끝에 1~3분 분량으로 쉽게 만들수 있는 ‘시민리포트’와 ‘딱1분’

코너를 구성하기도 했다.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에서는, 방송 신청물을 공모받거나 공동체 제작지원물을 모니터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방송 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작품이 많이 수급될 때는 각 작품당 시간을 축소하도록 제작자에게 주문하기도 하고, 시의성이 멀거나, 타 지역 작품이거나, 비디오 오디오 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들은 채택되지 않기도 했다. 제작지원팀의 제작지원 대상과 범주,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한 원칙에 대한 고민이 <TV시민세상>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이 방송에 참여할 때, 초창기에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원칙에 대한 강박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는 시민이 대본도 쓰셔야한다고 주장하곤 했지만, 이내 그들의 사연을 듣고, 제작지원팀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쓰고, 시민제작자에게 감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본이 되고 방송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제작지원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된다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만,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은 퍼블릭 액세스의 취지를 기억하기 위해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꽤 오랜 기간 가져야 했다. 2008년 당시 운영협의회 간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공동체 제작지원의 다양한 실험과 연속성, 실질적인 공론화와 의제해결로 나아가는 실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라디오시민세상>이 황금시간대에서 다시 토요일 오전 8시 45분으로 이동 편성되고, 매주 12분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진영은 MB정부 들어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지역방송사도 이러한 변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에서 시민제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 방송사와의 갈등과 협의를 반복하였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조율해내지 못했다면 <라디오시민세상>과 <TV 시민세상>에는 어떤 의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사회적인 문제제기의 내용 담은 프로그램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라디오시민세상> 등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에 남은 성과는 첫째, 지역의 주요 이슈, 특히 주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안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의제를 당사자들 스스로 방송에 직접 참여하여 알릴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다양한 지역시민들이 퍼블릭 액세스 스킴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4) 성장: 제작지원팀의 성장과 ‘미디어품앗이’ 네트워크 활동

2009년에는 제작지원팀이 확대되고, 자체 워크숍도 연2회로 확대하게 된다. 제작지원팀의 역량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지역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좀더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결심을 모으게 된다. 지역 내 퍼블릭 액세스 활동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사회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당감동 마을도서관, 반송희망세상, 화명동 맨발동무도서관 등등 풀뿌리 공동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퍼블릭 액세스 제작지원 교육을 펼치게 된다.

2010년에는 퍼블릭액세스에 관심있는 시민제작자들과 더 넓은 연대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 품앗이’를 시작했다. 부산 지역 내 시민미디어 제작자들의 네트워크로서 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팀을 비롯,

각 방송사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작품을 낸 경험이 있는 시민제작자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품앗이’ 활동의 취지를 설명했고, 첫번째 모임에서는 ‘퍼블릭액세스의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지역 퍼블릭액세스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후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했는데, 지역 현안이나 의제와 관련한 활동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고,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작업들을 하기도 했다.

2. <라디오 시민세상>의 지속 가능 구성 요소

<라디오 시민세상> 을 지속하게 하는 구성요소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영주체와 실질적인 참여를 일구어내는 사람과 조직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1) 조직된 힘 그리고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정권 변화에 따른 편성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라디오 시민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로 출발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방송사로부터 독립적인 구조를 확보하고, 시민미디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MBC 시청자위원, 언론 관련 학술단체가 추천한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부산MBC 액세스프로그램 관련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큰 틀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시민 제작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열린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시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사 측으로 배석한 운영위원들은 사상 검열하듯이 ‘이게 방송이 되는 게 말이 되나냐’는 식으로 아이টে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반대 사례 중 하나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아이টে이었다.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측 배석 운영위원들은 ‘방송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이 신청한 작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인 방송 송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내용상 어떤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팽팽한 논쟁을 이어나가야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와 관련된 방송이 나간 후, 이에 대한 민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퍼블릭 액세스 방송 원칙에 따라 입장이 다른 시민의 반론권을 보장해줄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출연 의사가 있을 시 제작지원팀의 도움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렸으나, 민원인이 반론 방송을 제작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의 하에 출발한 이후,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퍼블릭 액세스의 취지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상호 견인하면서 실질적인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사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라디오 시민세상>이 방송국 소유가 아닌, 부산시민의 공공재이자 문화자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산MBC’라는 명칭도 빼고, 기존의 ‘운영협의회’보다는 더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위상을 가지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데 합의하여 지금의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유지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비롯 부산MBC 구성원들도 <라디오시민세상>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담당PD들이 예전처럼 내용을 민감하게 문 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권 변화와 시민미디어 지형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토론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라디오시민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 속에서 방송사, 운영위원회, 제작지원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따로 또 같이 ‘퍼블릭 액세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지역방송사의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지켜 가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위기 속에서 ‘완성’이 아닌, ‘현재진행형’ 일 수 밖에 없는 실천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2) 제작지원팀

라디오시민세상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작지원팀에도 활동 경력이긴 제작자들이 많다. 라디오시민세상의 초창기부터 운영위원회 체계를 만들고, 제작지원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구성원과 10년 이상 제작지원을 해온 활동가들이 절반 이상이다. 취업준비와 생애주기의 변화로 새롭게 총원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흔들림없이 전통적인 미디어인 ‘라디오’라는 매체를 찾는 시민과 이들을 제작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공공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작지원팀이 라디오시민세상을 제작지원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작지원 과정

제작지원팀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정기 회의에서는 지난 달 방송된 아이템들의 제작지원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은 후, 다음 달에 방송될 아이템 발굴과 선정, 편성시기, 대략적인 기획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현재 제작지원팀은 15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에는 10명 내외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와 <라디오시민세상>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간사와는 별개로 <라디오시민세상>제작지원팀 내부 구성원들과 제작지원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 및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제작지원팀 간사를 두고 있다. 새로운 제작지원팀 구성원이 들어오면, 이 과정 전체를 경험하며 배울수 있도록 기존 구성원이 1:1 멘토가 되어 함께 제작지원 시스템을 경험한다.

아이템 발굴과 선정 -> 방송기획 및 섭외 -> 대본구성 및 작성 지원 -> 방송 녹음 및 편집 -> 방송국 종편 파일 전달 -> 라디오 방송 송출 (매주 토 08:30~08:57) -> 라디오시민세상 팟캐스트 ‘팟빵’에 업로드 -> 후속활동 및 의제 공유 지원 -> 채택료 지급(방송국)

표 2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 과정

(아이템 발굴 및 선정) 제작지원팀은 정기 회의 전에 구성원 각자가 시의성 있는 부산 의제나 이슈들을 탐색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보된 정보나 소식들을 조사한다. 본 정기회의 때까지 모인 아이тем들을 회의에서 공유하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

템을 선정한다. 아이템 선정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역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지역성'이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다양성'이다. 이러한 기준 내에서 주류 언론이 이미 많이 접근한 의제는 지양하고, 지역에 더 밀착된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다. 부산 시민사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발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송기획 및 섭외) 선정된 아이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다음달 방송날짜에 맞춰 대략적인 편성과 아이템별 제작지원 담당자를 매칭한다. 아이템과 관계된 시민참여자가 정해져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구체화할지 제작지원팀 내에서 논의한 후, 제작지원 담당자를 배치한다. 아이템만 선정되어 있다면, 시민참여자로 어떤 분께 제안드리는게 좋을지 섭외 후보군을 논의하고, 주제나 구성의 방향을 큰 틀에서 세운 후, 제작지원 담당자를 배치한다. 방송 참여자를 섭외할 때, 퍼블릭 액세스 방송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은 시민과 대면하는 단계에서 제작지원팀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러한 섭외과정은 아이템 회의 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이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부산시민분들께 상시적으로 방송의 취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지역사회에 알릴만한 이슈나 의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작지원팀 명함을 건내며 즉시 제안드리거나 필요시 언제든지 제보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게 되며, 추후 제보를 통해 라디오시민세상 방송참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본 구성 및 작성 지원) 방송참여가 확정되면, 시민제작자가 방송대본을 직접 쓸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하게 된다. 메인코너의 경우,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시민MC의 질문과 출연자의 답변으로 구성된 11분 분량의 대본을 미리 작성한다. 처음 라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들 대부분은 방송분량에 맞춰 라디오 방송에 적합한 대본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대본 양식을 가이드로 보내드리고, 시민제작자는 라디오 대본을 1차로 작성한다. 시민제작자가 작성한 대본을 제작지원팀이 전달받으면, 방송 분량에 적당한지, 어려운 법적 용어나 사회학적 용어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시민제작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 작업을 거친다.

(라디오방송 녹음 및 편집) 이렇게 작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녹음실에서 시민MC와 방송참여자가 함께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녹음하게 된다.이 단계부터는 시민MC, 시민 오퍼레이터,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간사가 함께 한다.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낮은 장비와 마이크 등 녹음실이 주는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퍼블릭 액세스 방송의 취지를 한 번 더 안내한다. 시민MC와 시민제작자는 완성된 대본을 읽으며, 입말에 맞게 멘트를 수정하기도 하고 점검한 대본을 가지고 녹음 부스로 들어간다. 시민 오퍼레이터는 생방송이 아닌 녹음 방송임을 한번더 고지하고 편안하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작지원 담당자는 전체 녹음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옆에서 녹음 진행상황을 모니터한다. <대담> 코너의 녹음이 끝나면, 오퍼레이터는 <사람과 사람>, <뉴스의 발견> 코너 녹음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녹음과 편집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에 참여한 시민제작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서 표준양식'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송출 시간과 다시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린다.

(후속 지원)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본방송이 송출되고 나면, 라디오시민세상 팟캐스트(팟빵)로 업로드한 뒤, 다시듣기 링크를 시민제작자에게 공유한다. 제작과 관련한 방송대본, 방송 현장 사진 등 라디오 제작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주요 키워드를 태그하여, 인터넷 상에서 지역의제로 검색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함으로써 라디오시

민세상과 지역 의제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제작지원팀 활동을 통한 성장지점

구성원은 한달에 1~2편 정도의 아이템을 돌아가면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라디오 교육 수료작이나 수료생들의 참여로 제작 편수를 확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개인 활동이나 본업을 하면서 동시에 제작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은 라디오시민세상이 단순히 자신의 미디어 제작능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이 아닌, 제작지원 과정에서 성장하게되는 다양한 지점들이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시민력과 활동가 임파워먼트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의 확장과 사회 참여 네트워크 확대

<대담>코너에 참여하는 시민제작자 중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활동가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지역 의제와 함께 그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활동가들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 라디오시민세상을 계기로한 이러한 만남은 2,30대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시선을 확장하고, 시민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료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

<사람과 사람> 코너에 참여하신 시민제작자분들은 동료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한다. 부산에 오래 살았지만, 모르고 살았던 부산의 또다른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인터뷰이로부터 고맙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게 되면서, 취재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제작자들도 있었다. 제작지원팀과 시민제작자들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운영위원회 간사는 시민이 동료시민을 취재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서로 이끄는 관계형 임파워먼트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팀 구성원 각자는 리더가 되어 동료시민을 시민제작자로 참여시키면서, 지역 퍼블릭 액세스 방송 한 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무사히 송출해야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 제작지원팀 회의에서 아이템을 함께 발굴하고, 편성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시민제작자 미팅 및 섭외, 라디오 제작지원, 후속활동까지 시민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방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 소통과정에서 제작 단계를 최대한 경험하게 된다. 제작지원팀 구성원은 각자 본업을 하는 조직에서의 직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제작지원팀 내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리더가 된다. 또한 새로운 제작지원팀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멘토와 멘티가 되어 역량을 강화하기도 한다.

25분이라는 한정된 방송 시간 내에 메시지를 녹여낼 수 있도록 제작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민 뿐만 아니라, 제작지원팀 구성원들 각자가 기본적인 기획구성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작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제작자 뿐만 아니라, 제작지원팀의 제작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경험은 자연스럽게 지역 미디어 활동가로 성장하게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의 미디어활동가들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이 활동의 정체성이나 필요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3) 중간지원조직: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이 지역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는 시민제작자를 양성하는 미디어교육을 개설하고, 시민들이 직접 퍼블릭액세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며, 그 결과물이 지역방송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안내하는 등 지역시민의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라디오시민세상이 온전히 시민의 힘으로 제작하기까지 함께 발맞춰온 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에 대해 향후 더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안정적 제작을 위한 기본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기도 했다.

4) 지역방송사의 정체성 확립과 의지

심층 인터뷰에서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은 '해당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나 사회적 약자, 스피커가 부족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부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방송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변한 미디어 환경이 도래한지 이미 오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방송사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부산MBC가 방송발전기금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라디오시민세상>을 제작지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협의해나가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방향을 찾아나간 선례는 부산KBS, KNN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방송사들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열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주었고, 실제 프로그램 편성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방송국의 출발이 약 20년 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며, 이것이 지역방송국에 다시금 어떤 형태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야하는 시점을 맞이하였다.

5)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체계 및 방송발전기금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체계, 즉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한 시민제작자들에게 채택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라디오시민세상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KBS<열린채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들은 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민주적인 운영위원회 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지역성 등 퍼블릭액세스권을 실현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디오시민세상은 이러한 요건들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제작지원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로 20년 가까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나 급변하는 미디어지형, 기금지원 중단 위기 등의 이슈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3. <라디오시민세상> 프로그램 지속 운영에 따른 파생 효과

1) 1인 미디어 시대,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가치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고, 개인 채널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기술

적으로는 쉬워졌지만, 낮아진 문턱만큼이나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거대한 플랫폼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콘텐츠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노출이 잘되는 자극적인 언어와 이미지로 제작되기도 한다. 시민제작자들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기성언론과 라디오 시민세상의 차이를 느끼고 그 지점에 대한 소감을 피드백해주기도 하셨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프로그램의 재원은 어디에서 왔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제작했는지 등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과 논쟁들을 거쳐오면서, 전국 각지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사라지기도 하고, 라디오시민세상처럼 살아남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간사는 ‘한 시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내가 몸담은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장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2) 지역독립영화 콘텐츠 기획으로 발전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팀 중에는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활동가가 많다. 특히 오퍼레이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들은 매주 라디오시민세상을 통해 부산의 시민사회 소식을 바로미터로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라디오시민세상에서 만난 의제가 영화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우리 생탁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였죠. 생탁 문제를 라지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사안에 대해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니까 이미 그분들의 이야기가 웹툰으로도 소개되기도 했는데, 생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나 여건이 심각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 <깨어난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긴 시간 투쟁하고 있는 현장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풍산’ 문제는 여전히 그냥 마음속에 염두하게 되는 것 같다.” (전 제작지원팀 오퍼레이터, 영화감독)

“생탁문제도 그렇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영화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현 제작지원팀 오퍼레이터, 영화감독)

3) 사회적기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중물이 되어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라는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미디어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이후 부산 MBC 지역방송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라는 논의 체계를 만들어 공공성과 지역성이 우선시되는 라디오시민세상이라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된다. 이것이 부산시민들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 제작지원팀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제작지원 활동이 지속가능하려면 구성원들이 우선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했다. 지역에 건강한 미디어일자리가 필요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작지원팀의 다음단계로 공공미디어분야의 사회적기업을 구상하게 된다.

2010년 9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단체가 되어 부산민언련 사업단 이름으로 부산형 예비사회

적기업을 신청했다. 당시 공공미디어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했으며,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 및 시민미디어교육 등의 활동경력을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으로 인정받게되었다. 당시 구성원들은 독립영화나 공익홍보영상 제작을 프리랜서로 해왔기 때문에, 미디어콘텐츠제작을 통한 수익창출 계획과 시민미디어사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미디어활동가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팀 활동도 더욱 안정적으로 병행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대안미디어 실험, 플로그TV

제작지원팀을 매개로 연결된 지역미디어활동가들은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 외에도 대안적인 미디어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험하기도 했다. '플로그TV'라는 채널을 유튜브에 개설하여 영상으로 시의성 있는 지역소식과 의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은 한진중공업 파업으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위원장의 소식을 전하는 콘텐츠였다. 당시 희망버스를 비롯한 많은 대중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부산미디어활동가들도 한진중공업의 노조탄압을 감시하는 미디어대응을 계획하고, 카메라와 함께 주야 교대로 불침번을 서거나 시리즈를 기획하여 장기화된 파업 속에 연대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한시적인 프로젝트로 끝났지만, 대안매체, 대안미디어에 대해 제작지원팀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성과이다.

5) 지역 청년들의 미디어 분야 취업 지원

라디오시민세상의 세 코너 중 <뉴스의 발견> 이라는 지역뉴스 코너의 경우 예비언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참여가 많았다. 실제 이 코너를 거쳐간 청년들은 현재 언론인으로 종사하거나, 기타 미디어업계의 취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제작지원팀으로 활동하면서 쌓인 일경험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디어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중간지원기관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제작지원팀을 뿌리로 둔 공공미디어분야 사회적기업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4. <라디오 시민세상> 아카이브의 필요성

1) 방송 기록물 관리현황

가. 관리대상과 보유량

라디오시민세상의 기록물 관리 대상으로는 방송된 오디오 파일(1회차당 1건의 오디오파일), 방송대본, 방송목록(시민제작자, 제작지원팀, 코너별 진행자) 등이며, 그 외 팟빵 팟캐스트의 인사이트나 후속지원활동으로 남긴 블로그나 페이스북 콘텐츠들(녹음현장사진 등)이 활동의 증거로 남아있다.

2005년 10월 29일 첫방송부터 20주년을 맞이한 2025년 11월 1일까지, 1,044주가 있으며, 매주 1회 결방이 없었다면 1,044회의 방송이 송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제작지원팀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 오디오 파일, 방송대본 등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보관장소 및 관리 실태

현재 방송 오디오 파일과 대본이 남아있는 기록물의 경우, 각 방송에 참여한 시민제작자 및 참여단체, 제작지원팀, 시민MC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메타데이터 기술과 색인 및 전거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주 쌓이는 방송기록물을 유실되지 않게 공용 외장하드에 매주, 매월 백업 저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매주 쌓이는 대본과 방송목록 및 참여관계자 명단(시민제작자, 제작지원 담당자 등)은 구글드라이브에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되고 있다.

Tr	연도	방송 목록	목록 건수	방송 오디오 파일	# 오디오 파일 건수	방송 대본 파일	
2005		목록 기술(완료)	1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06		목록 기술(부분완료)	14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07		자료 없음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08		자료 없음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09		자료 없음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0		자료 없음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1		자료 없음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2		목록 기술(완료)	134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3		목록 기술(부분완료)	43	소장(이관완료)	9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4		자료 없음	0	소장(이관완료)	46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5		목록 기술(완료)	138	소장(이관완료)	53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6		목록 기술(대기)	0	소장(이관완료)	53	없음(방송국문의요함)	0
2017		목록 기술(완료)	154	소장(이관완료)	52	소장(이관완료)	52
2018		목록 기술(완료)	154	소장(이관완료)	51	소장(이관완료)	52
2019		목록 기술(완료)	156	소장(이관완료)	52	소장(이관완료)	52
2020		목록 기술(완료)	116	소장(이관완료)	52	소장(이관완료)	50
2021		목록 기술(완료)	112	소장(이관완료)	54	소장(이관완료)	53
2022		목록 기술(완료)	152	소장(이관완료)	54	소장(이관완료)	52
2023		목록 기술(완료)	153	소장(이관완료)	52	소장(이관완료)	53
소계		소계	1336	소계	528	소계	364

부산MBC 방송사에 보관되고 있어야 할 기록물은 방송 초창기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MD로 저장하여 방송국에 종편을 직접 전달하는 제작지원체계를 유지하던 시기의 MD(mini disc)가 가장 핵심이 된다. 방송국에서 MD 및 방송된 결과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날로그 매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폐기된 상태인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작지원팀 회의록, 라디오시민세상을 거쳐간 시민MC, 제작지원팀 구성원 등의 명단, 기획제작된 영상기록물 등도 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방송 기록물의 활용 및 아카이브 방향

라디오시민세상이 다룬 의제, 참여한 시민제작자 및 단체들은 지역/공동체/마을, 교육, 정치/사회,

노동, 환경, 성평등, 여성, 동물권, 장애/인권, 평화,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들 중 같은 주제이지만 해마다 등장하거나 몇 해가 지난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채 재등장하기도 한다. 어떤 주제는 몇 년에 걸쳐 해결이 되기도하고, 더 악화된 국면을 맞이한 채 재등장하기도 한다.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 같은 단체에서, 또다른 시민제작자가 그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라디오시민세상 아카이브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실천이 한눈에 보이는 관계망으로 펼쳐지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길 제안한다.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라디오시민세상 기록물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사회학자, 미디어언론인, 부산 시민 누구에게나 지역공공데이터로서 그 활용가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릭 액세스권이 공공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대한 정보접근권의 실현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라디오시민세상 아카이브가 시민이 만든 방송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망 정보들로 연결되고, 지역 시민제작자들이 이를 재가공하거나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데 도움될 수 있다면, 더 확장된 미디어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라디오시민세상>의 흐름과 특징, 지속가능한 요소들을 통해 부산 지역 퍼블릭액세스의 현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의거한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와 지역민의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해, 지역의 상황과 제작의 현실을 고려한 <라디오시민세상>으로 출발하였다.

둘째, 지역방송사와 시민사회가 협의하여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열린 논의 체계 안에서 <라디오시민세상>을 운영함으로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라디오시민세상>을 지속하게 하는 구성요소들에는 지역사회내 열린 구조의 운영시스템과 실질적인 참여를 일구어내는 사람과 조직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지원팀, 중간지원조직, 정체성과 지역성을 지닌 지역방송사의 의지,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체계와 방송발전기금 등이 상호 작용하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견인해나가고 있다.

넷째, <라디오시민세상> 제작지원팀 활동을 통해 지역방송의 역할과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가치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독립영화 콘텐츠 기획으로 발전하거나, 미디어분야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일구었다. 제작 주체들의 다양한 시도가 대안미디어 생산으로 이어지는 실험으로 연결되었으며, 제작지원팀을 거쳐갔던 청년들이 관련 미디어조직으로 취업에 연결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다섯째, 라디오시민세상은 20년 가까이 쌓여온 방송 콘텐츠에 담긴 의제 다양성과 변화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퍼블릭액세스권에서 더욱 확장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라디오시민세상>과 관련한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부산MBC 방송사와 결락된 기록을 복원할 방법을 논의하면서, <라디오시민세상>의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년간 축적된 라디오 콘텐츠가 AI미디어와 공공데이터시대를 만나고 있다. 이 자리의 논의가 라디오시민세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또다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윤영태(2005), 시민미디어 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2호, pp.308-341
- 김은규(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시민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재영(2020), 네트워크 시대의 지역 가치와 지역방송 플랫폼화에 관한 이론적 탐색
- 박민(2019), 신뢰와 권위 갖춘 '지역 큐레이터'돼야, <신문과 방송> 2019년 6월호, pp.06-09
- 진민정(2021), 공익 저널리즘 구하기 <미디어 정책리포트>, 한국언론진흥재단
- 도기태, 정희경(2020),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 서비스 개선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 18권 제4호
- 홍숙영, 정의철(2018), 지역방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방송학보32
- 정상윤(2002),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6-4 pp.337-367
- 유승관, 박창희, 홍종배(201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내용분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2 :1, pp.146-153
- 백미숙(2004), 미국 근대 방송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시민라디오'의 실험, 1919~1922, <언론과 사회>, 2004년 봄 12권 2호, pp.7-51
- 김경환(2009),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동기가 참여만족도 및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2 상반기(통권 21호), pp. 117-144
- 주창윤(2011), 1965년 '경험의 매개'로서 라디오와 시공간의 설정,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임종수(2017), 라디오의 역사적 단절에 대한 우려: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학술저널, 방송문화 2017년 여름호, 2017.6 189 - 204
- 이강택(2010),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참여 연구 - 2000-2009 KBS 사례를 중심으로
- 남태수(2014), 부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연구-KBS<열린채널>을 중심으로
- 임선주(2015), 시민참여방송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MBC 라디오 시민세상>을 중심으로-
- 김성광(202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중파 미디어 공공성 구축의 의미 모색-<울산CBS> 시민참여형방송 '나올통'을 중심으로, 2021년 한국과학기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 최민음(2021), 공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7:3, 537-543
- 나미수(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규(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시민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규, 박민, 이진행, 최성은, 오재환, 석보경(2010),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호남지역과 타 지역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대토론회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방향모색>(2007.5.9.) 자료집
- 지역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회 <부산경남지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모델 발전방안>(2007.10.26.) 자료집
- 2008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영상제 <간담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2018.11.29.) 자료집
- 복성경(2010), 부산 퍼블릭액세스 제작 및 지원활동 사례, <2010 퍼블릭액세스 워크숍> (2010.10.7.) 자료집
- 문종대, 복성경, 권용협(2010), 퍼블릭액세스의 이해와 오해, <미디어포켓> (2010.7.8.) 자료집
- 오정훈(2022), 퍼블릭액세스를 다시 바라보다 <https://blog.naver.com/medianuri/222626912533>
- KBS열린채널 웹페이지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openchannel>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2019),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보고서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행사 당일 토론 정리본)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 기념세미나
디지털 미디어시대,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가치와 전망**

사 회 이상기 부경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전 부산MBC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발 표 <라디오 시민세상>의 역사와 가치_ 박지선 미디어 활동가

지정토론 김대경 동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도상형 부산MBC 편성제작국 TV제작부장
배효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유진 시민참여자



이상기(부경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MBC에서 함께해 주고 계신 도상형 TV제작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 부장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증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발표에서 아카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MBC의 역할을 요구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자유롭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정토론 도상형(부산MBC TV제작부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받으면서 제가 지금은 TV 제작부에서 제작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0년경에 라디오 PD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그 당시에 <라디오 시민세상>

담당 제작 PD는 아니었습니다. 제작 PD는 아니고 퍼블릭 액세스 운영협의회일원으로서 <라디오 시민세상> 송출을 담당했던 PD로서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라디오 시민세상>은 이제 단순히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부산MBC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내용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제작지원단의 힘을 받아서, 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런 훌륭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송출 플랫폼을 부산MBC를 통해 방송하는, 그런 형식의 본격적인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 또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많이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하고, 또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로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처음에 2005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생겨날 때 아마 지금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산MBC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본래의 의미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발휘될 수 없기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닌데, 당시에 녹음을 부산 MBC에서 직접 오셔서 하셨고, 그래서 방송 장비라든지 이용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또 직접 송출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제작비를 부산MBC가 100% 다 부담해서 제작했었습니다.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작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주제의 선정이라든지 출연자의 선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 사회 소수자들, 또 지역의 청년들, 장애인들, 노동자들, 이주민들, 또 지역의 예술인들, 마을미디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소재나 주제에 대한 방송사의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성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방송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측면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점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내러티브가 약할 수 있지만, 직접 시민들이 한다는 그게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다고 할 때도 너무 퀄리티를 기존의 프로그램처럼 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블릭 액세스를 지원하는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민주적인 공론의 장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방송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여론 다양성 확대에, 또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지역성을 강화하고, 또 기록의 가치를, 기록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사회의 문화, 이런 기억들을 기록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

민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제작 과정 자체가 미디어 교육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곧 학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려면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20년 동안 겪어오면서 퍼블릭 액세스는 많이 발전했지만 점차 제가 알기로도 해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여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지원금이고, 나머지 20%를 방송사가 부담했는데 점점 그 비율이 내려가서 방발전기금이 한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이런 기금들이 확충돼야 되는데 왜 그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제도적으로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이 만드는 방송이지만 최소한도로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 저작권은 물론 시민들이 갖고 계시지만, 방송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도 또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개인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주는데, 반론권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10분, 11분 제작하라고 하시면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반론 인터뷰, 아주 짧게라도 “지난주에 어떤 내용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정도라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1분, 2분짜리 인터뷰라도 그런 장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더 공감력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이 퍼블릭 액세스가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SNS, OTT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확대돼야 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노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이빙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MD로 제작해 주시면 저희들이 MD를 받아서 이것 디지털화해서 넣고, 미니디스크는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치 모아서 다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는 MD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저희들이 디지털화했던 자료들이 지금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기록들이 없는 게 저도 많이 아쉽지만, 솔직히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방법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원고라든지, 출연했던 분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문서자료라도 좀 확보해서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면, 방송 파일은 없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라디오 시민세상> 20년은 시민이 직접 우리 부산 지역을 말하고 기록하고 변화시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민이 주체가 될 때 지역이 활기 있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이 이 프로그램으로 증명했다는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MBC는 시민들, 그리고 제작지원팀,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사회와 함께 이 <라디오 시민세상>이 지속 가능하고, 또 시민 참여 방송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네 고맙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 하셨네요. 그리고 참여가 곧 학습이라는 말이 와닿는데 그런 맥락에서 시민참여자로 함께하셨던 정유진 씨께서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정유진(시민 참여자):

네, 바로 연결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저는 시민 참여자가 본 <라디오 시민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라디오 시민세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미디어 관련 학과를 다니면서 제작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활동을 지금은 미디어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민 미디어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라디오 시민세상>을 접했을 때 저한테는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게 해주는 창 같은 거였어요. 대학교 진학으로 부산에 처음 오게 돼서 부산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도시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라디오 시민세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전혀 몰랐거나, 뉴스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만한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투쟁하는 현장들, 그리고 또 좋은 뜻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라디오 시민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또 그게 더 나아가서는 저의 사회적 감수성과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키워준 공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공영장래운동 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분을 알게 돼서 여러 번 제작지원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공영장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운동 뒤에 있는 무연고자나 빈곤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회 참여적인 시각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려오는 이런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목소리가 개인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었고, 또 제가 참여하는 시민으로 자라게 됐다는 것,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공미디어의 역할을 <라디오 시민세상>이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개인화된 미디어가 많아서 이런 공공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주에 다 모아서 볼 수 있을 만한 미디어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있다는 게 제가 속한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웃들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 시민세상>에 ‘우리 주변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남천동 앞바다 매립되기 전에 물질을 했던 해녀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이야기 같은 걸 취재하면서 그분들이 방송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내가 가진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 겪으면서 <라디오 시민세상>을 계속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활동 자체를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임의의 모임이지만 ‘제작지원

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도 다 시민미디어, 공공미디어에 대한 가치를 알고 꾸준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끼리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할 때 각자의 가치나 지향점을 나누고, 방송이 얼마나 공공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점검했었어요. 서로 활동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고, 또 응원해 주고. 이런 힘이 없었으면 아마 <라디오 시민세상>이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송을 넘어서 시민이 스스로 사회를 기록하고 발화하는 플랫폼처럼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는 시민 누구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 했던 그런 공동체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 시민세상>이 계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세미나를 통해 그 가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공미디어로서 지역과 사회를 더 깊이 연결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상기:

네 좋은 말씀은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에 도움이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유진:

저희는 딱 하나 바라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녹음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인데요. 이게 시설이 또 오래됐다고 하니까요. 초기에 들여왔던 장비가 되게 크고 무겁고, 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되게 고급 장비이지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너무 소수여서 그런 상황들에 항상 저희는 좀 조바심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또 대안을 따로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3층 녹음실에 있는 그 기계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정토론 배효순(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안정적인 운영 보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항상 그 만드는 해에 제일 좋은 장비들을 센터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센터에서 제일 좋았던 장비는 20년 전에 들어온 장비고, 그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인데, 처음에 아마 만들었던 분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거나 하는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장비 중 일부는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장비도 있습니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더 싼 그런 상황인데 살 수는 없는, 이런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은 방미통위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재구축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먼저 생긴 센터부터 장비들을 교체해 주고는 있거든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산은 녹음실이 한 번 교체되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어쨌든 <라디오 시민세상>의 불이 안 꺼진다면 저희 녹음실 불도 안 꺼지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네, 제작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배효순 센터장님

이어서 지정토론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효순:

<라디오 시민세상> 20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시청자미디어센터 20년하고 비슷한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청자미디어센터, 조금 더 나아가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얘기를 조금 드러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시민세상>이 2005년 10월에 열렸다고 한다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같은 해 11월에 열립니다.

그때 처음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 정관 같은 걸 보면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 딱 있거든요. 저희들이 왜 존재하냐고 한다면,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딱 이 문구로 시작을 하는데, '권익 증진'이라는 문구는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 추상적이긴 해도, 그 앞에 있는 '방송 참여'라는 건 그냥 대놓고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명기해놓고 센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라디오 시민세상>에 제작지원팀이 있다면 저희 센터에서도 제작지원팀이 별도로 5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5명은 '미디어교육팀'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단지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미디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건 미디어교육, 그럼 거기서 분절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이 끝나면 그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작지원', 이런 식으로 약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저는 미디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디어를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시민 미디어 운동이나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유분방한 모습과,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모습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딱딱한 기업에서 왔었거든요. '뭔가 잘못 왔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어느 순간 동화가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야성 속에서 많이 미디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흥내 내기라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전 직장 동료이자 현 미디어 활동가이신 박지선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라디오 시민세상>의 연혁 같은 걸 꼭 보여주면서 '2008년의 위기'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위기는 저희들에게도 대위기로 한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살려두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느냐까지 깊게 고민이 들어갔던 그해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어떠한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직인지도 잘 몰랐는데, 놀랍게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방송위원회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거였고, 그 프로젝트 사업에 저희들은 직원으로 고용된 그런 식이었고, 이 건물조차도 저희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정말 주인처럼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위탁된 센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겪다가 큰 위기를 한 번 겪었고, 그 위기가 수습은 됐지만 수습되면서 저희들을 타 공공기관에 입양 보내듯이 위탁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각자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다른 길을 갔고, 남겠다고 한 분들은 남기로 하고 위탁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세련미는 많이 갖춰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먹구구로 하던 일도 이제는 뭔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 서류를 만드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걸 저희도 강요받듯이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안 좋아진 점이라고 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야성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때 당시 팀장님이 “우리는 풍찬노숙하는 센터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몇 년간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있다가 2014년에 법이 바뀝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걸 아예 방송법에 명기해 버리면서 저희가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독립이 되고 나니, 과거 위탁 시절의 센터와 독립 후의 센터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직원들이 일하는 센터인데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달라졌고, 부산·광주가 처음 갖고 있던 그 가치들은 다른 시청자미디어센터들이 전국에 한 해 많게는 세 곳씩 동시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센터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본부가 있고, 그 본부가 주무 부처와 얘기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의 수행기관처럼 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는 정말 강한 저희의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미디어교육에 방점이 조금 더 많이 찍혔던 것 같아요.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해야 했고, 연령도, 계층도 많았는데, 센터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니까, 센터 수가 늘어나도 예산은 그대로라 결국 n분의 1, n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예산서를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사진 보듯이 봤는데, 그때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10배 정도가 그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있었습니다. 쓰다 쓰다 지쳐서 다 못 쓰고 반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쪼개고 쪼개 써도 만족스럽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취사선택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량적으로 해야 하는 성과치는 늘 10%씩 상향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로인데, 달성해야 하는 정량 목표가 한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가치까지 실현하려다 보니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 <라디오 시민세상>은 부산센터 입장에서만 본다면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대체 미디어 공공성, 아니면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시청자 참여 보장,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너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자들도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걸 송출해줄 수 있는 방송국도 그 해 그 해의 입장에 따라 사라졌다가 생겼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서로 안정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라디오 시민세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44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요즘 부산MBC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이름이 안 바뀌고 20년 장수한 최장수 프로그램이 <라디오 시민세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잘 버텨왔고, 그 안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제자님께서 중간지원조직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 더 깊게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라디오 시민세상>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안정적인 시설과 장비 지원이 거의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예 하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대놓고 <라디오 시민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더라도 저희는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시켰고, 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작은 걸음으로 쌓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나마 <라디오 시민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부산MBC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참여 프로그램의 성과도 좋은데 왜 매칭 비율은 점점 안 좋아지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지상파라고 하더라도 처음 들어오면 약간 마중물처럼 100:0 매칭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프로그램이 꽤 탄탄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9:1, 8:2...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정된 자원에서 여러 방송사에 나눠야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에 공동체라디오가 대규모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추가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오 시민세상>을 바라보는 입장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추가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제언해 주시면 그것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네, 배효순 센터장님의 중간지원조직에서 바라본 <라디오 시민세상>의 의미 짚어주셨습니다. 네 20년 동안 <라디오 시민세상>은 2008년 보수 정권도 그렇고 또 진보 정권의 경험도 겪었는데요. 정권에 따라서 요동도 쳤던 것 같고 그래서 법도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김대경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정토론 김대경(동아대 교수):

네, 먼저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제작단에서 활동해온 미디어 활동가분들의 노력이 너무나 크고, 물론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제작단에서 활동하신 미디어 활동가분들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이빙’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년의 성과가 쌓여 있고, 앞으로 또 10년, 20년.. 크게 보면 이 지역 내에서 이런 시민참여 방송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빙이라는 게, 지역별·주제별로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도 동부산·서부산 등 여러 지역이 있지만, 주제별로, 또는 참여자들의 직업·연도별로 정리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

게 된다면 20년 동안 제작된 <라디오 시민세상> 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공공데이터 차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좀 더 구체화하려면 예산과 인력 같은 현실적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C나, 시청자미디어센터, 방통위 같은 곳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상파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 그리고 미디어의 형태와 기술 변화, AI가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 내에서 ‘지역민의 관여와 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상파는 중심을 잡되,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와 함께 공론장의 가치, 그리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시 고민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시민세상> 같은 사례를 통해 지역 시청자들의 참여와 관여를 높이고, 지역 지상파의 일상적 역할을 강화하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계속 위기와 변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 인력과 예산 구조죠. 그렇지만 단순히 현실의 한계를 넘어, 전체적인 판과 구조를 조금 더 크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지상파, 예를 들면 부산MBC가 이 지역 공론장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플래그십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나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 같은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나 방통위 등도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참여와 공론장 형성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자를 포함한 전체 시민이 이런 미디어 공론장에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지, 그 제도적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통위,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학들에 ‘라이즈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규모가 각 대학별로 100억~200억 단위에 달하거든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취업 문제뿐 아니라 시민참여형 방송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는 큰 그림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시민세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한 지 한 6년이 됐는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센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이지만, 여기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결국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제작단에 대한 지원이나, 또 기반 인력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데에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 센터 본연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또 동명대, 부경대, 동아대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학교가 연계해서, 제작 환경이나 시청자 참여 구조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센터나 시민단체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도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 구조도 조금 조정,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라이프 사업'이라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시청자 참여 방송의 구조를 좀 더 제도화하고, 활성화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갑자기 제가 예전에 위원장 했던 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불만이 방송시간대가 '토요일 아침 8시 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청취율을 사각지대라는 거였어요.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지만, 토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자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차 안에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라디오는 보통 이동 중에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대라 '라이브로는 정말 전달되기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부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욕구나 여러 가지 범위가 물론 기존 방송에서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아까 반론권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 시민이라는 게 상당히 큰 범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역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동체라디오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부산MBC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바운더리는 '부산 전체'가 되는 거고, 공동체라디오는 구(區) 단위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복합적인 현장을 모두 경험하고 계신 우리 복성경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 복성경(부산민언련 대표):

네, 저는 저의 정체성은 제작자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제작을 지원하는 제작지원팀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퍼블릭 액세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교육 강사로서의 정체성도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일단 잘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라디오 시민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산MBC의 몇몇 간부와 부산민언련이라는 시민단체의 '<라디오 시민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더 붙기 시작합니다. 방송사 안에서도 그걸 지지하는 언론노동자들이 생기고, 시민사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커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관심도 훨씬 커지고, 이러면서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 모두의 <라디오 시민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경험치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어느 정도 기여하고 계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돌보면서, '진짜 <라디오 시민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는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자격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라디오 시민세상>이 2005년에 방송을 시작하고 2년 후에는 부산의 공영방송 KBS부산이 열린TV를

열게 됩니다. 같은 시기였어요. KBS부산이 5월에 첫 방송을 하고, 부산MBC의 TV시민세상이 6월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방송 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미디어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CBS부산, 부산평화방송, 부산케이블방송, 더 나아가 지역의 마을미디어, 그리고 제가 잠시 일했던 우리의 대안미디어 ‘플로그TV’까지 포함해서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이끄는 방송이나 활동들이 그 시기를 계기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역사회의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놀랐던 건, 강원 쪽 PD님이 전화를 주시고, 전북 쪽 MBC에서도 연락을 주셔서 “부산MBC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싶다” “그 과정을 좀 듣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방송사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서울MBC였어요. 서울MBC 시청자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라디오 시민세상>을 자료조사 건으로 연락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2017~2018년경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시작된 시민참여방송이 전국으로,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게 <라디오 시민세상>의 중요한 가치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권익, 시청자 주권 이야기를 할 때, 법에서도 말하지만 결국 방송 접근이 핵심이잖아요. 방송사의 문을 열고 우리가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그게 송출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날 방송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는 걸 듣는 순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미디어센터 직원분들도 댓글을 달며 소통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정말 ‘시청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엔 정치적 이슈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주제들도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는 발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보며 ‘시청자 주권’을 구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라디오 시민세상>이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 도상형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생각이 이렇게 같을 수 있구나’ 놀랐어요. 부산MBC가 저와는 가장 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민의 지점이 비슷하고 평가 내용도 비슷하다는 게 놀랍고 의미 있었습니다.

언론단체 입장에서는 늘 “공적 책임을 실현하라, 시민 목소리를 담아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부산MBC는 <라디오 시민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 부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다른 방송사나 언론들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결합이야말로 지역 언론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재원이 풍족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정말 밀착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아카이빙된 자료를 보면, 저도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산의 여름’, ‘부산의 사람들’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질감이 살아나요. 시민사회 활동가인 저조차 몰랐던 아이템과 직업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책이나 기존 언론에서는 본 적 없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들을 미디어교육 수업에서 자료로 자주 사용합니다. 지역에 밀착된 방송이자, 취지에 맞게 성실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건, 개별 제작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혼자 제작했지만, 취재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다른 시민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센터나 방송국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공동체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공개방송 때도 전업주부로 시작했던 시민리포터가 4년간 활동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분의 평가와 소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라디오 시민세상>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도 생각보다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0년 전만 해도 “더 잘해라, 이렇게 해라” 요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귀하고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긍정적 결과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개인화된 미디어가 넘쳐나지만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는 미디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라디오 시민세상>’ 같은 소박한 미디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크기나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적 미디어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도 혼자 크리에이터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안전한 통학로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제작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효능감을 느끼시고 자체적으로 돌아가셔서 또 활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성과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구 단위의 안전한 밤길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밤길’을 만들어내는 이슈,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크고 작은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0년이라고 올해에 엄청 박수를 받고 진행이 되었는데, 부산에는 수많은 영화제들이 있거든요. 10년 넘게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영화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한다든가,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나오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것도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라디오 시민세상>만큼 다양하게 접근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환경시민단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시민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부터, 그다음에 다양하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교육으로 하는 것, 공동체가 하는 것, 공동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격려를 받는 이런 케이스를 저는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면서 저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KBS나 EBS나 MBC를 통해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진짜 이런 언론은 정말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는 점, 이걸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0주년뿐 아니라 매주 방송하면서도,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출연 후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중간중간에 미리 재단하지 않고, 다 듣고 나서 합의에 의해서 편집하고 최대한 분량을 빼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 엄청 감사해하는 인사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원래 민연련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 이슈가 언론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발언 기회를

앞으로도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가 말씀하신 저는 지역 공공 데이터로서 라디오 시민 세상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항상 있었고, 지속적으로 10년 차 때부터 문제 제기는 했는데 방법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런 토론회도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면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보면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역에서 부산시를 권력을 감시하는 걸 할 때 인터뷰이랑 항상 똑같잖아요. 텔레비전 오래 보시는 분이야, 신문 많이 읽어보시는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은 누구, 환경은 누구, 이렇게 사람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언론사의 기자분들이나 PD분들 중에서 라디오 시민 세상에 출연했던 단체나 사람들 이름 데이터가 있으면 좀 넘겨줄 수 없겠나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그때 몇 번 받았습시다. 딱 그 시기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데 라디오 시민 세상을 우연치 않게 소개받아서 들어갔는데 진짜 다양한 시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자기들도 더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에 넣고 싶다. 그런데 찾다가 제작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데이터가 있으면 검색하면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쪽쪽쪽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공적 데이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연구자가 연구를 하더라도 지금 2015년에 한 번 연구되고, 작년·올해 박지선 활동가가 하신 게 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실 때 그다음으로 업데이트해서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공 데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 실질적인 이야기로는, 초창기 부산MBC는 자체 제작 라디오보다 <라디오 시민세상>에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습니다. 그건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이후 방송발전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자부담이 9:1로 바뀌었고, 운영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운영되는 곳에는 오히려 더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 왜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 이런 현장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형,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는 기금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평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방송사에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역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재평가와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라디오 시민세상>의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취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집엔 라디오가 두 대나 있지만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가야 들을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예요.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은 있는데, 시민이 만든 방송은 들을 수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갈치 아줌마도 유튜브로 들어야 하고, KBS도 지역방송은 앱으로 접

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꼭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부산일보가 신문 글자 크기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진행했듯이, 이런 시민 접근성 개선도 ‘퍼블릭 액세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부터라도 재단, 위원회, 방송사, 그리고 센터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그게 <라디오 시민세상> 20년의 다음 20년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토론

이상기:

네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토론회에 함께 하고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길 님 말씀해주시죠.

이희길(부산민언련 회원, 전 부산MBC 사장):

제가 MBC 종사자로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나 야사랄까요,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2005년에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MBC 사장이 노조 출신으로 처음으로 당선됐었고 미디어센터 초대 센터장EH 부산MBC 출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하고도 관계가 많았었고 또 언론학자, 교수님들도 합세해서 아마 그렇게 태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시초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방송사였고요. 다만, 중간에 위기 상황이 왔던 건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실 부산MBC는 초창기엔 제작을 회사 내부에서 함께 하니깐 괜찮았는데, 이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을 맡으면서부터는 사실상 송출 기능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PD들 입장에서도 이걸 자기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외부적인 일을 맡는 느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매달 회의를 이어오면서 지속성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MBC 내부에서도 ‘송출만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회사에 32년 있었고, 그중 10년은 기획과 경영 쪽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 재정 업무를 7년 이상 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송 정책 흐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 대표님 말씀처럼, ‘시청자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내부 평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종종 대표 사례로 내세우곤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전국적으로도 꽤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라디오 시민세상>이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부산MBC에서 제일 오래된 건 아닙니다. 부산MBC에는 ‘자갈치 아지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64년에 생겼으니까 올해로 60년이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MBC의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면 ‘자갈치 아지매’와 ‘<라디오 시민세상>’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편성이 TV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중간에 TV판 프로그램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제가 사장 시절에 TV 버전을 부활시키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라디오의 완성도는 좋았지만, TV 프로그램은 PD들 입장에서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책으로 2019년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 참여 형태'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카이브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둘째, 라디오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조명하는 것. 이 자료 정리와 지속성의 문제는 결국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자료들은 아마 공식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녹음해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라디오 듣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힘들습니다. 다만 앱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디오 전체 방송이 나오는 앱이 있어서 그걸 깔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안 들어가도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운대 지역은 조금 잡히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MBC 채널이 95.9인데, 포항KBS도 95.9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잘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네, <라디오 시민세상> 초창기부터 근무하셨던 부산MBC 전 사장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현주 선생님 말씀부탁드립니다.

이현주(부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라디오 시민세상> 출연자):

예, 저는 부산시 언론 소방대 연합회 회장 이현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내가 가면 혹시나 기회가 주어지면 이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복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저는 여기 방송 제가 나온 지가 몇 개월 되지는 않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언제, 며칠 날 방송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의용소방대 지대장이나 대원들이 듣는다고 "며칠 날 토요일 아침 8시 반쯤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라디오가 없잖아요. 라디오가 없어서 "이걸 앱으로 어떻게 깔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도 라디오가 없으니까 "그럼 앱을 설치해 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계속 '자갈치 아지매' 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차에 내려갔어요. 차가 지금은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반 시간 기다리니까 그제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참 아쉽다. 너무 아쉽다.' 부산MBC에서 이게 어떻게 좀 안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정말 위력이 있더라고요. 엄청났어요. 제가 그 방송 인터뷰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20년 전에 거래처 관계에 있던 대표님이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현주 씨 아니에요?" 하시면서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TV 방송은 눈으로 보니까 더 직접적이긴 하지만, 라디오도 생각보다 위력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가 많지만, 이렇게 여전히 라디오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은 “아침에 운동하다가 차 시동 걸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싶었어요. 다만, 그 라디오 접근 부분이 조금만 더 활성화되면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형(언론노조 부산MBC지부 지부장):

네, 몇 년전에 부산MBC 앱이 정비가 됐습니다. 가장 쉽게 청취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산MBC 앱을 깔고,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시면 부산MBC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기: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 네, 정순영 팀장님 말씀하시죠.

정순영(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사실 <라디오 시민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어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지만 또 한 가지,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완성도’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되게 만듦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아주 높은 방송이라는 거죠. <라디오 시민세상> 자체가. 그래서 그걸 듣는 분들은 이게 방송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제작한 거라는 걸 사실상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 부산MBC라는 방송 매체의 영향력을 금방 체감하고 나면 그 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다른 주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은 또 뭘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PD 역할을 해주시는 간사 복 대표님과 제작지원팀의 역할입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을 위해 제작지원 활동이 수년 동안 사람 교체가 거의 없이 이어졌고, 간사 역할을 맡으신 분은 10년 넘게 계속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며 만들어지는 시민방송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낸 완성도, 그리고 그 만듦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시민참여 방송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르죠. 그래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완성도’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조금 욕심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콘텐츠를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완성도’ 문제 때문에 해당 방송의 PD님들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저희 담당 직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근거가 뭔지, 방송 현업에 계신 분들도 좀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엔 제작지원팀, 방송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근거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입니다. 이 중에서 시청자의 방송 참여는 곧 시청자의 권리이고, 퍼블릭 액세스 권리운동 자체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퍼블릭 액세스 운동,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활동가들의 내용이나 방송 결과물에 대해 아직도 일부에서는 정치색이 입혀져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시민세상>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9:1, 8:2 이런 식으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즉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많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공론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즉 시청자 참여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학술적인 연구나 토론회 자리도 초창기에 비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걸 신경 쓰는 사람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시청자미디어재단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공정하게 많은 방송사에 기준을 세워 지원금을 나누는 수행기관일 뿐입니다. 그 이상, 대신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낸다거나 비판을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 재단에서도 방통위를 통해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재단이 단독으로 움직이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퍼블릭 액세스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이라는 개념은 지금 너무 퇴색된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산 증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병구(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현재 퍼블릭 액세스 지원을 맡고 있는 배병구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퍼블릭 액세스 방송의 가치와 전망’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사에는 편성표라는 게 있고, 그에 따른 편성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제 또래인 30대 정도까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만화를 보기 위해서 학원을 마치고 급하게 집에 뛰어가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이 편성권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송이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의 전망’을 이야기할 때, 메이저 방송사들이 물론 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틀 즉, 콘텐츠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그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대 친구들과 함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언제 방영이 된다”고 알려줘도 실제로 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고는 싶다’는 반응은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주는 것도 물론 좋

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다른 디지털 미디어 채널에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잘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MBC 쪽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서로 다시 보기 링크를 공유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방송사들도 자사 유튜브 채널 안에 ‘퍼블릭 액세스’ 섹션을 하나 만들어 참여자 동의만 받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라도 함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시민이나 학생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공적인 공간에 남는다’는 감동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이상기: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결국 <라디오 시민세상>이 앞으로 20년을 더 이어가려면, 단순히 ‘편성표 안의 프로그램’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접근성과 기록, 확산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성경:

유튜브 콘텐츠는 저작권은 제작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제주 사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린 채널도 그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KBS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새로운 유입을 위해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도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작자 동의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TV를 통해 정보를 얻지는 않더라도 “지상파 방송에 나간다”는 건 여전히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요. 그걸 향해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층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긴 하죠. 근데 젊은 층이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 저는 그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 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진 않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도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는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방법처럼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면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꼭 <라디오 시민세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협의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층도 끌어들이 수 있고, 접근 범위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를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팟빵’은 사실 당사자에게만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KBS나 부산MBC처럼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건 참여자 스스로도 “공적 행위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부산MBC에 경영 결정권자가 계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송출을 라디오 PD들이 직접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나운서분들이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인력 부담이 크다는 뜻이에요. 작은 공정이더라도 다 ‘업무’로 편입되는 구조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지원팀에서는 ‘팟빵 업로드’나 ‘이메일 전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쉽게 실행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여러 번 올

리기도 하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토론하실 때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상현 부장님께서 “반론 기회를 앞으로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론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력원자력에서 저희가 원자력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때, “잘못된 정보다. 우리가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통화도 했었고요.

그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이기대에 SK가 아파트를 지을 때 허위 광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대책위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SK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시라,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죠. 그다음 주에 방송으로 이어지기로 했는데, 결국 항의는 많이 하셨지만 출연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실제 방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면 시장에서 노동자가 해고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몰린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출연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영진 쪽, 그러니까 번영회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셔서 공방으로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분씩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차피 ‘다양성’에 기반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공방만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팩트가 생기지 않아서 그 시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반론권은 다른 언론과 똑같이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된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화(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라디오 시민세상>이 부산 지역의 큰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부산을 좀 떠나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전북에서도 연락이 오고 서울 본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다 했지만 결국 이게 현실화가 안 된 이유는 그 지역에는 부산처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소위 말해서 ‘희생하는 활동가들’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런 헌신과 검수, 노력 같은 게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산이나 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조차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려면 또 다른 단계의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정순영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과 달리 지금은 정말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유튜브나 1인 미디어, AI 생태계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퍼블릭 액세스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담론 구조 자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퍼블릭 액세스를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논의해야 할까요? <라디오 시민세상>이 20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이별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라디오 시민세상>이 부산만의 특이한 사례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방송사들도 “이건 해볼 만하겠다, 가능한 모델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서 과거 미디어센터가 출범했던 것처럼, 지금도 방송사와 미디어 기관들이 퍼블릭 액세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적 논의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진에게 드리는 부탁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냥 부산 안에서만 ‘우리는 잘했어’ 하는 식의 자화자찬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다시 살리고 “이런 식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된 자리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송구하네요.

복성경: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독립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자는 구상이에요. 그걸 만들면 가능하면 전국의 미디어센터를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화 형식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쯤 같이 하고 있는 기술지원 담당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그 작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적인 대안은 될 수는 없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쯤 그 작업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20주년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역의 제작지원팀 미디어활동가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경화:

네, 오늘 학교에 오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 세상에 워낙 ‘핫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 이런 주제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한 번 더 연구하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이나 아카이빙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10주년 때 이런 토론이나 논의가 조금이라도 실타래가 풀렸다면 지금쯤은 뭔가 모아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0주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좀 어렵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30주년이 됐을 때 또 “아카이빙이 끊겨서 중간이 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카이빙이라는 게 꼭 거창한 시스템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전문 인력이 분류 체계를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너무 큰 기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카이빙이 뭘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정말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가 되니까요. 사실 방송사에서도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있다”는 점이 어찌면 심리적인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방송 파일을 넘길 때 저작권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서 “아카이빙에 동의합니다”라는 절차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MBC <라디오 시민세상> 방송이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형식으로만이라도 남는다면, 그 링크 하나로도 기록의 의미가 생긴다고 봅니다. 유튜브나 팟빵에 올리는 것보다 공신력 면에서도 훨씬 낫고,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록물이자 아카이브의 대체 수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산MBC 관계자분들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다. 정말,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

말씀하시니까 학술적으로 잠깐 덧붙이자면 ‘퍼블릭(public)’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퍼블릭이 누구냐’부터가 이미 난제죠. 그래서 크기, 전국화, 모델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논문 심사를 하나 했는데 주제가 “오늘날 공영방송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영성’과 ‘퍼블릭’의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여전히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또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져 왔고 여러분은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신 분, 아 박정희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부산민언련 사무국장)

근데 시청자미디어센터 20주년이 올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라디오 시민세상>에 대한 세미나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뜻을 모아서 지금 시점에 한 번 의미를 짚고, 방향을 짚는 자리를 만든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목에 ‘전망’이라는 단어를 넣긴 했지만, 그 전망을 실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지만 이게 정말 지금 시대에 ‘밝은 전망’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시민세상>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미를 얘기하다 보니 이 안에서 머무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제 20주년을 맞았고, 행사 준비로 모두 분주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1인 미디어처럼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가 많지만, 그 대부분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익적 의미를 가진 콘텐츠, 즉 ‘시민의 공공적 접근권’을 실현하는 방송의 가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를 논의할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시민의 몫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공적 기관의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드립니다.

배효순:

예, 일단 20주년 토론회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특강 하나와 토론회 한 세션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현재 세부 주제를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난 20년을 함께했던 분들,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각 시기를 대표했던 분들을 모시고 센터의 성과와 의미를 짚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니, 준비되는 대로 한 번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 퍼블릭 액세스 방송의 가치와 전망’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